

가나아트 · 발행일 1991년 9월1일 공보처 등록번호 마-1371 · 발행처(주)가나아트갤러리 · 전화(02) 738-2205 · 738-8646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 우편번호 110-300

1991
9.10

통권 21호

가나아트



특집 지방자치 시대와 지역미술

지금 이 **이종상** 작가론 **황주리**
작가는

미국기업의 미술투자

지상갤러리 · 해외옥션 정보

AIDS에 대항하는 미술

해외미술관을 찾아서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현대미술관

해외작가 / 리히텐슈타인

ANA ART BI-MONTHLY MAGAZINE OF ART

‘야만의 얼굴을 한 문화’ 고발

안창홍전



안창홍 「장미빛 인생」 혼합재료 82×112cm 1991

제1회 청담미술제를 위한 안창홍작품전이 샘터화랑의 초대로 마련되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작품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는 꾸준히 한국화단의 중견작가로 성장할 만큼 확고한 그만의 작품세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지니고 있는 현실의 층위가 그 작가의 기질과 그 작가가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관습, 그리고 작품에서 제시되는 유토피아의 원리로 얹혀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미학적 위상은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인간 1, 2」, 「꽃밭에서」, 「보리밭 문둥이」, 「장미빛 인생 1,2」 등은 모더니즘이건 민중미술이건 간에 우리 미술계가 그 동안 등한시했던 리얼리티의 또 다른 범주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현실에 대한 접근방식의 새로운 변주를 가늠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안창홍의 작품들이 포착하고 있는 현실상들은 그것이 현실의 비현실적인 측면들을 그의 고유한 현실주의적 조형어법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 미학의 이미지즘과도 다를 뿐 아니라 그간의 민중미술의 ‘현실주의적 미학의’ 개념과도 구별된다. 그의 각각의 작품들은 자본주의적 일상의 산문적 반복이 사회적 욕구와 상취 기재의 심층적 분열을 통제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미적 표상들은 그 보상형식이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개인들의 비현실적인 무의식적 욕구와 의식되고 있는 대상세계와의 현란한 착종을 죽음의 알레고리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하면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주된 미적 정서는 개

인의 출생과 죽음이라는 일생의 전개과정 속에서의 본능적 욕구와 불행한 의식의 전조들을 사회심리적 계기들과 일치시킬 수 있는 이미지들을 창조해내는 작업의 유희성에 기초하고 있는 매우 심미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작가 안창홍의 감수성의 토대는 ‘야만의 얼굴을 한 문화’의 성감대에 지극히 밀착되어 있다. 그의 작가적 역량의 발전적 가능성도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가능성과 동시에 그의 한계가 모두 이 지점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 전시회에서 보듯 그의 감수성이란 것이 너무 문화의 표피층에만 겨냥되어 버리거나 아예 일치되어버릴 수도 있어서, 그의 감수성이 더 이상의 반성적 여유를 지니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세대의 감수성 저변에 깔려있는 욕구의 정치경제학과 사회·문화적 관습의 억압구조를 현실상으로 제시해주는 그의 작품들의 내용과 형식은 현실주의적 예술의 보다 다변화된 현실접근 방식으로서, 미술이라는 매체가 지닐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강성원/ 미술평론가〉

7월 4일~7월 13일 · 샘터화랑